



칼럼 배철현 고전문헌학자

참을 수 없는 모욕, 나를 다스리는 세가지 처방

모욕(侮辱)은 우리의 평정심을 흔들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최악의 감정이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IT세기는 한사람 혹은 불특정 다수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전엔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정보들이 우리를 그런 뉴스에 중독시킨다. 그 중독자들은 더 심한 자극이 필요하다.

모욕에는 말이나 글을 통한 언어폭력,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무시, 그리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신체폭력이 있다. 모욕의 주체는 나와 상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마시대 스토아철학자들은 모욕을 중요한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지루하고 집요하게 다뤘지만, 스토아철학자들은 일상을 심오하게 묵상했다. 그들은 모욕이 행위를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판단해 그 처방전을 내렸다. 모욕은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는 비이성적이며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스토아철학자들은 모욕에 대처하는 방

안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방안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휴지기를 가지고 욕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일 그의 말이 옳다면, 그것은 내게 모욕이 아니라 진실이다.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 세네카(기원전 4년~기원후 65년)는 어려서부터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허약체질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모욕을 욕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한다. 수용할 대상이다.

“소위 모욕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들은 나의 대머리, 약한 시력, 얇은 다리, 그리고 형편없는 체격을 조롱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데 이것 말이 왜 모욕입니까?”(‘현자의 견고함에 관하여’ (De Constantia Sapientis) XVI.4a.)

두 번째 방안은 모욕행위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만일 그가 질시 때문에 근거가 없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소문을 가지고 나를 비방한다면, 그에게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만일 모욕행위자가 사회의 존

경을 받는 높은 인격의 소유자라면, 그의 문제제기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일생 동안 연마해 독주회를 열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제 막 그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그의 연주에 대해 공개적으로 연주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무시가 최상의 방안이다. 만일 내가 그 모욕의 공급원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완전히 비열한 인간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면, 나는 모욕당할 수가 없다.

만일 그가 내 작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했던 작업이 오히려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짓을 떴을 때 유야무야 된 행위가 어머니를 화나게 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혹은 어쩌다 마주친 게 나를 향해 짓는다고, 그 게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로마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사람들의 모욕에 대한 반응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同情心)이라고 설명한다.

“누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당신은 즉시 그가 무엇을 좋

나 나쁜 것으로 여겼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을 알고 나면 당신은 그를 동정해 놓아도 화내지도 않을 것이다.”(‘명상록’ VII.26a)

모욕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안은 모욕을 당한 내 자신의 반응을 가만히 보는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나에게 창피를 주고 파괴하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모욕이라고 판단한 내 생각이다. 노예였다가 스토아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55년~135년)는 모욕을 익숙한 사람이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후에 자유의 몸이 돼 그리스 아드리아 해안가에 위치한 니코폴리스라는 도시에 철학학교를 세웠다. 그는 철학을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을 통해 숙성된 삶의 철학으로 등극시켰다.

그 제자인 아리아논은 그의 강의를 요약해 ‘엔키리디온’(Enchiridion)이란 책에 남겼다. 엔키리디온이란 그리스어는 ‘손에 들어오는 조그만 책’ 즉 ‘인생수첩’이란 뜻이다. 그는 모욕이란 감정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자신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나쁜 소문을 내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모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화를 유발했을 때, 당신을 화나게 만든 것은 당신 생각이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겉모양에 허둥지둥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시간을 두고 휴지기를 가진다면, 당신은 감정과 반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社 說

우려스런 지역 의원 상임위 편중

21대 국회 전반기 2연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활동하는 상임위 배정 결과가 공개됐다. 그런데 특정 상임위 편중이 심해 향후 지역 현안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이 지역 의원들이 몰린 반면 일부 상임위는 아예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소위 알짜배기라는 국토교통위원회에 2명이 포진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무려 5명이 들어갔다. 노론자유 상임위로 통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386 운동권 출신의 현 정부 실제 두 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과 밀접한 국방위원회에는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4월 민주당 광풍이 불어닥친 총선에서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모두 줄줄이 고배를 마실 때 예견됐지만 안타깝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도 전무하다. 전남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관련 상임위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힘이 실

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노위 역시 전남의 핵심 현안인 흑산공항 관련 상임위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된 행정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작 광주 출신 의원 한 명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고 보건복지위에도 점 하나를 찍은 것은 그나마 대행이다.

광주·전남은 농어촌 지역구가 많고 이번에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으로 여의도 안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는 되지만 지나치게 편중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상임위 배정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지역 의원들끼리 서로 조율하거나 소통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주당 광주시당이나 전남도당 차원의 조정 역할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작부터 이렇게 초보 티를 내는데 앞으로 국회가 본격가동되면 지역의 현안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 불보듯 뻔하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 안전사고 사전에 준비하자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 장마기간이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철은 빗길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빗길운전에는 시야가 감소하고 미끄러워진 노면으로 평소보다 교통사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한다.

2018년 여름철(6월~8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23만 건을 분석한 결과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맑은 날보다 1.21배 높게

나타났으며, 빗길미끄럼 사고는 1.72배, 특히 야간(20시~5시)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50%이상 길게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며 브레이크는 여러 번 누여 밟으며 비가 올 때에는 낮에도 어두우므로 전조등을 켜도록 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km/h 이하

로 서행운전 하여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화재에 방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냉방을 위해 에어컨이나 제습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 급증으로 사람들의 부주의나 무관심, 제품의 노후화 및 불량으로 화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며,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잡아 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장마철에는 이밖에도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가 많이 있으므로 미리 미리 대비하고 조금만 더 사전 점검을 세심히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나기에 힘써야 하겠다.

조성인/무안소방서 소방사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